

‘재산 기부’ 저커버그에 지구촌 폐북 친구들

〈52조원 상당〉

페이스북 지분 99% 52조

워런 버핏·블룸버그 등 찬사

빌 게이츠 재단 대표는 “와우”

딸에게 보내는 편지서

“정보 불평등 해소”

“저커버그, 당신의 결정이 전 세계에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당신 덕에 오늘 태어난 모든 아이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될 거예요”

마크 저커버그(31)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아내 프리실라 켈과 사이에 딸 맥스가 태어난 것을 계기로 사실상 전 재산에 가까운 페이스북 지분 99%(약 52조원)를 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각계각층 인사들의 호평과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남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와 함께 세계 최대 자선재단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이끄는 멜린다 게이츠는 딸의 탄생을 알리고 기부를 약속한 저커버그의 글에 댓글로 “가장 먼저 떠오른 말은 ‘와우’(Wow)”라고 환호했다.

세계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게이츠 부부는 재산 대부분을 재단에 기부하고 세 자녀에게 극히 일부만 상속하기로 한 결정을 먼저 실천한 바 있다.

멜린다는 “당신들이 오늘 보인 모범은



아빠 된 저커버그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원쪽)가 1일(현지시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내 프리실라 켈과 함께 갓 태어난 딸을 안고 있는 사진과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올렸다. (저커버그 페이스북 캡처)

우리와 전 세계에 영감이 될 것”이라며 “맥스와 오늘 태어난 모든 아이는 우리가 현재 아는 세계보다 더 나은 세계에서 자라날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 부부와 함께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성명에서 “두뇌, 열정, 이런 규모의 자원이 합쳐져 수백만 명의 삶

을 바꿀 것”이라며 “미래 세대를 대신해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명사들은 특히 전 세계의 교육·정보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저커버그의 의견을 높이 평가했다. 저커버그는 딸 맥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에서 “전 세계 인구 절반을 넘는 40억명 이상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팝스타 사키리는 “당신의 약속은 성공은 나눌 때 그 효과가 증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는 누구도 뒤처지게 두지 않는 일이며 모두를, 그리고 인류 전체를 이끌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평했다.

블룸버그통신 창업자인 마이클 블룸버그(73) 전 뉴욕시장도 성명을 내 “마크(저커버그)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한 데 대해 영원히 이 일로 기억될 만한 변화를 일군 데 대해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산 기부를 약속한 바 있는 억만장자인 블룸버그 전 시장은 “마크의 결정은 사회공헌에서는 ‘30대가 새로운 70대’임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세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는 아름다운 편지이며 믿기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미래 세대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허핑턴포스트 창업자 아리아나 허핑턴도 “우리는 세상이 더 나아지고 있으며 그렇게 되도록 전념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연합뉴스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60년...재현 공연

미국 흑인 인권운동사에 빛나는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이 일어난 지 60주년을 1일(현지시각) 몽고메리 소재 텍스터 예배뉴 킹 메모리얼 침례교회 기념식에서 여성들이 그날을 재현하는 공연을 펼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성명을 통해 “로자 파크스는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었고 재력이나 권력을 가진 집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60년

전 오늘 미국을 변화시켰다”고 치하했다. 흑인과 백인의 버스 좌석이 분리돼 있던 미국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시에서 로자 파크스는 60년 전 이날 백인 좌석에 앉은 뒤 백인에게 자리를 내주라는 요구를 거부하다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를 계기로 좌석을 피부색에 따라 구분하는 버스를 타지 말자는 ‘버스 보이콧’ 운동이 펼쳐졌다.

연합뉴스

시진핑 반부패 사정 드라이브

장차관 포함 80명 낙마·징계...교육·금융 등 폭 넓게 겨냥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반(反)부패 사정 드라이브가 최근에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현장조사단인 중앙순시조는 지난 10월부터 약 두달간 진행한 올해 3번째 집중감찰을 통해 9개 부처 및 기관에서 총 80여명의 간부를 조사해 낙마시키거나 징계했다고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2일 보도했다.

중앙순시조의 교육부 감사에서는 중앙음악학원의 왕츠자오(王次焯) 원장이 딸의 결혼식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의 기율위반 혐의가 적발돼 면직되고 당내에서 엄중 경고처분을 받았다.

또 베이징 우전(郵電)대학과 대외경제 무역대학, 중국전매대학 간부 등 총 18명의 비리가 적발됐다. 순시조의 이번 조사를 통해 금융 당국의 간부들도 대거 낙마했다.

중국중앙기율감독관리위원회(중감회)의 아

오강(姚剛) 부주석이 지난달 중순 낙마한 데 이어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의 국장급 간부인 왕옌슈(王岩岫) 등 4명도 기율 위반으로 조사 대상이 됐다.

중국인민은행, 국가통계국,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중국인민보험공사,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 등의 고위간부들도 비리와 청렴규정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중국인민은행 신용정보센터 기율위 서기 가오쥔(高軍), 국가통계국 청하이(靑海)조사대 기율검사조 조장 주안(朱安), 우전대학 기율위 서기 동시(董時), 중앙음악학원 기율위 서기 팡환레이 등이 감속소환 등의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최근 상하이(上海)와 베이징의 ‘성부급’(省部级·장차관급) 관료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31개 성·시·자치구가 운데 장차관급 관료가 낙마하지 않은 지역은 단 한 곳도 남아있지 않게 됐다.

연합뉴스

유럽 난민 유입 지난달 36% 첫 감소

“거친 날씨·터키 단속 때문”...올해 88만명

올해 들어 줄곧 증가해온 유럽 도착 난민 수가 지난달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유럽연합(EU) 국가에 도착한 난민 수가 11월에 약 14만 명으로 전달(22만명)에 비해 36%나 줄었다고 1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윌리엄 슈핀들러 UNHCR 대변인은 올해 들어 전달 대비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에게해의 악천후와 터키 당국의 인신매매단 단속 등의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EU 역내에 도착한 난민 수는 88만666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의 4배 규모다.

유럽 도착 난민 대부분은 터키에서 에게해를 건너 그리스로 유입되고 있으며 일부는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건너가는 방법 등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작고 낮은 배에 정원의 몇 배

를 초과하는 사람이 타고 밀항하다 수많은 난민과 불법이민 시도자들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비극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유럽 도착 난민 중 절반 가량은 내전에 찌든 시리아 출신이며 52%는 어린이와 여성이다.

한편 EU로 입국하지 못한 채 터키와 마케도니아 등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의 생활여건이 극도로 열악하며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유엔아동기금(UNICEF)은 1일 밝혔다.

UNICEF 대변인은 마케도니아나 터키 등에 도착해서도 텐트 하나에 30~40명이 자며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EU와 터키는 지난달 29일 EU로의 난민 유입을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터키에는 현재 약 200만명의 난민이 머무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내 IS 홍보대사 300명...3분의 1 여성

400여명 트위터 동향 파악

미국에서 수니파 급진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최소 300명 이상이고 이 중 3분의 1이 여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NBC 방송은 미 조지워싱턴 대학의 극단주의 프로그램 연구진이 낸 미국 내 IS : 리트윗에서 락까지지라는 보고서를 인용해 1일(현지시각) 이같이 전했다.

이번 연구는 IS 홍보대사로 파악된 미국 내 300~400명의 트위터 활동, 수사 기록 등을 통해 미국 내 IS 실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IS를 선전하고 잠재적인

동조자를 모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직업·연령대에 분포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이들 언론은 전했다.

연구를 이끈 로렌조 비디노는 “체포된 용의자는 검경과 전투원부터 10대 소녀까지, 범죄자에서 대학생까지 충격적일 만큼 다양했다”면서 “IS와 관련한 급진화 정도, 동원된 규모도 전례가 없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체포된 용의자의 연령대는 15세 소년부터 47세의 전직 공

장교까지였다. 평균 26세였다.

체포된 용의자의 14%는 여성이었고, 40%는 이슬람 개종자로 파악됐다. 전체의 절반 정도가 이라크, 시리아 등지로의 외국여행을 시도했으며, 분쟁 지역이 가 있던 중 검거됐다.

연합뉴스

병원건물 임대

남구 송하동 광주대입구
센트럴레스토랑 건물

토지 2,211㎡(668평) 건물 4,218㎡(1276평)

- 파격적인 임대조건 (보증금 및 차임)
- 병원용도에 따라 10년이상 임대보장

문의 010-7570-7525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용봉동 굿모닝타운 2층상가 매매

- 전용289㎡ 현재 카페 인테리어+체육시설적합 공실포함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5억) 실투자 2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